

## 몸 · 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개발

정기성<sup>+</sup> · 김민자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부교수<sup>+</sup>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 Development Paradigm of Repression and Desire Embodied by Body and Clothing

Ki-Sung Jeong<sup>+</sup> · Min-Ja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sup>+</sup>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Researcher,

The Institute of Human Ec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3. 5. 2, 심사(수정)일: 2013. 6. 16, 게재확정일: 2013. 7. 27)

#### ABSTRACT

In this study,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repression embodied by the body and clothing are referred to instinctual, power and creative desires, respectively, from the point of biological, social and aesthetic views. Desire refers to a behavior to overcome men's imperfections with individual security, sense of belonging and the pursuit of an ideal, which are obtained by living as a social creature. Repression through the body is sub-categorized depending on whether it is temporary or permanent. Repression expressed through clothing is seen through revealing/concealing, contraction/expansion, and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What enables human beings to embrace changes in fashion without fierce resistance or backlash is the changes of formativeness demonstrated by re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clothing. The aesthetic values drawn from the exhibition of repression and on the body and clothing are categorized into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While narcissism is an instinctive desire grounded on the originality and confidence of the self that results in refusing repression, fetishism is a desire for power that expedites repression in the pursuit of materialistic value or sexual fantasy. Aestheticism is a desire for creativity that symbolizes the body-and-clothing repression in the pursuit of aesthetic idealism. Repression evokes desire, and the pursuit of desire leads to another repression. The aesthetic values of desire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can be substituted with each other for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attitudes of an initiator, a user and a spectator.

Key words: aestheticism(에스테티시즘), desire(욕망), fetishism(페티시즘), narcissism(나르시시즘), repression(억압)

## I. 서론

현대 패션은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통합적 이미지를 총체적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각적 아름다움을 보편적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적 평가는 사회구성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질적 가치로 치환된 아름다움의 추구나 트렌드로 유포되는 사회적 이상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욕망의 충족을 담보로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요하고 있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억압이 모든 힘의 근원인 자연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sup>1)</sup>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인간의 역사를 억압의 역사로 보았고 개인의 욕구 본능이 포기될 때 문화가 시작된다고 하였다.<sup>2)</sup> 현대 소비사회에서 몸·복식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식이다. 몸·복식에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조형성은 억압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조형의 메커니즘이며 미적 가치의 해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몸·복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억압의 관점에서 몸·복식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의 변화를 미적 형식의 변화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속에 내재된 인간의 욕망과 미적 가치의 본질에 다가서며 패션의 변화가 원인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고 미래 패션의 방향성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먼저 억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생물학적·사회학적·미학적 관점에서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을 정의하고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억압의 유형과 미적 가치에 대한 분석의 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억압의 사전적 정의

억압(repression)이란 힘으로 억누름<sup>3)</sup>, 자기의 뜻

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행동, 특히 충동이나 욕망을 억누름을 이른다.<sup>4)</sup> 억압은 'repress'의 명사형으로 'repress'는 keep, or put down or under: prevent from finding an outlet.(억제하다, 저지하다, 진압하다)의 의미를 제공하여 개인, 사회집단, 국가 간을 대상으로 충동, 감정, 욕구 등에 대한 통제 개념으로 두루 사용됨을 알 수 있다.<sup>5)</sup> 정신분석학 용어로서 억압은 의식에서 고통스럽고 불쾌한 관념·사고·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넣으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억압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사고·관념은 망각을 통해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그 힘은 없어지지 않고 무의식 안에 남아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sup>6)</sup> 이와 같이 억압은 충동이나 욕망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배로서 자기 규제의 통제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살펴본 억압의 개념을 정리하면 억압은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 전반에 있어서 충동, 감정, 욕구나 욕망에 대하여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하는 의식적·무의식적 지배양식이다.

### 2. 억압의 생물학적·사회학적·미학적 개념과 특성

#### 1) 생물학적 관점

다윈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억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생존조건'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억압은 힘에 의해서 행사되고 모든 힘은 결국 자연 속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조건은 대개의 경우 그것에 복종하는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각자의 노력에 일정한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지하고 있는 길로 향해진 모든 노력을 무효화되게 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sup>7)</sup> 게엘렌(Arnold Gehlen)은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 결핍 존재로 규정하였다. 생물학적 결핍존재란 신체기관이 비전문적·비적응적이고 생리적 충동구조가 불안정하며 신체적인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의 부재로 자연적인 조건하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보호양육이 필요한 미완성의 존재임을 가리킨다.<sup>8)</sup> 게엘

렌은 충동적인 존재, 특화기관을 갖지 못한 육체적 결핍성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특징적 상황을 '세계개방성'이라고 하였다.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의미하는 세계개방성은 자극과잉과 자극수용구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존상의 부담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과 충동과 행위의 조형성으로써 다양한 생존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sup>9)</sup> 인간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욕구와 충동에 대해 방향정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욕구와 충동의 방향정위는 그 충족의 대상과 내용 등을 임의로 설정·정위하는 것이므로 방향정위 된 욕구와 충동은 조형성의 결과로써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sup>10)</sup> 인간이 대자연에 대해 가지는 세계개방성은 "주위환경에 대한 기관·기능적 적응성의 결여가 자의적이고 자유로운 적응으로써 오성, 언어, 도구제작 등의 근본적인 조건들을 개발하게 하였다."는 셸러(Max Scheler)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인간은 환경과 문화적 양육과정을 통하여 충동을 억압하고 충동의지를 지연시킴으로써 충동의 주기성을 일정범위에서 대체·보완·지체할 수 있다. 인간의 주기적 충동의 지체구조는 탈 부담활동의 가능성과 사회적 습득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sup>11)</sup>

다윈과 게엘렌은 억압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보편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억압의 근원을 자연의 힘으로 제시한 다윈이 생존조건 개념을 통하여 '복종하는 인간'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게엘렌은 생존조건에 대하여 '세계개방성' 즉, 문화적 존재로서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사회학적 관점

억압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근원을 사회구조, 관습, 그 속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억압은 제도적 의식으로서 문화적 환경의 경험과 학습에서 유래한다. 베이유는 억압의 생성 조건을 특권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회학적 관점의 억압을 '권력'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12)</sup>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다.<sup>13)</sup> 정치학에서 권력은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예측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다.<sup>14)</sup> 권력이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타자의 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가리킨다.<sup>15)</sup> 권력은 지배-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다. 권력을 행사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권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원인) 그 행동을 하는(결과) 힘으로써 억압적이다. 권력은 근본적으로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강제성과 억압성의 원인은 권력자가 피 권력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의지적 힘에 있다.<sup>16)</sup>

마르크스주의는 권력이 경제적 토대를 반영하고 이것을 위해 기능하는 지배계급의 소유물로 본다.<sup>17)</sup> 권력은 특정한 계급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계급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권력은 자연과 본능을 억압하고 개인이나 계급을 억압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타인에 대한 힘과 영향력의 근원을 자본(capital)이라고 하였다. 사회는 지배적인 자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고 자율적인 경쟁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공간을 장(champ)이라고 한다. 시장권력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외향적으로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자의 주체성은 시장구조 내에서 상품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sup>18)</sup> 푸코(Michel Foucault)에게 권력은 어떤 개인, 집단, 기구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으로서 그것이 작용할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하는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이다.<sup>19)</sup> 권력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인을 자신의 개별성에 의해 구별한다.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권력의 형식이다. 네그리(Negri)는 권력(power)을 지배권력(pouvoir)과 역능(puissance)으로 구분하였는데 'pouvoir'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려고 하는 지배 권력인 반면 'puissance'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무엇인가 하려는 흐름을 강조한다.<sup>20)</sup> 마르크스의 권력이 특정한 계급의 소유물로서 자연, 본능, 개인이나 계급을 억압하는 지배 권력이라면 푸코의 권력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닌 관계망으로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으로써 역능

이라고 할 수 있다. 루만(Niklas Luhmann)은 권력을 소통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생산성'을 부각시켰다. 루만에게 권력은 한번 성립되면 스스로를 계속 형성해 가는 '자기 생산적' 구성물로서 역사적으로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비(非)억압적인 지배-복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sup>21)</sup> 권력을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는 루만에게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영리한 복종전략인 것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지되고 행사되는 과정을 분리하였고 권력의 강제성과 억압성은 권력이 유지되고 행사되는 과정에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권력은 형성과정에서 타인들과 함께 공공의 의사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힘을 의사소통적 권력(communicative power), 즉 사회 권력이라고 하였다.<sup>22)</sup>

### 3) 미학적 관점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억압이 아마도 초자아의 명령에 따르는 자아(ego)가 이드에서 생겨난 본능적 리비도의 집중과 협동하려고 들지 않을 때 자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자아는 억압이라는 수단으로 비난받을 만한 충동의 매체인 관념이 의식으로 바뀌는 것을 통제한다.<sup>23)</sup> 프로이트가 말하는 본능은 정신장치에서 동인(動因)이 되는 힘이며 정신 속의 모든 에너지는 이 본능(id)에서 나온다.<sup>24)</sup> 행동을 일으키는 최초의 동인인 본능은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초월한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본능의 목표는 동인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쾌락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며 대부분

의 인간 활동과는 건설적 요소로 작용한다.<sup>25)</sup>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쾌락의 활용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적절히 다루는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 de soi)와 연관된다. 쾌락의 활용이란 스스로를 알고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론적·윤리적·정치적 덕성과 연결되는 주체화의 한 요소이며 양식이다.<sup>26)</sup>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의 쾌락을 지배하는 것과 자신의 쾌락을 로고스(logos)에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의 일이었다. 쾌락의 활용 혹은 성적 질제는 '자기의 지배라는 형식을 갖는 자유의 수행'이다. 자기 지배는 주체가 타인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자신과 맺는 방식 안에서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아형성과 자아창조를 위한 규범적 토대는 '자기에의 배려'를 향한 도덕성이었고 윤리적 이상은 자신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엄격한 자기 통제에 의거한 도덕성이었다.<sup>27)</sup> 푸코는 『삶의 의지』에서 섹슈얼리티 혹은 욕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지식-쾌락체제(régime de pouvoir-savoir-plaisir)를 분석하였다. 푸코는 '욕망'이란 단어를 통해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육체와 쾌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 성과 욕망, 권력을 가로지르는 요인을 '진리'라고 하였다.<sup>28)</sup> 현대의 주체형성은 규율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존재의 미학에 의한 자기창조에 있으며 주체형성은 곧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sup>29)</sup> '자기에의 배려'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자아형성, 자기인식, 자기훈련, 욕망과 쾌락의 활용 등의 주체화 양식'이며 '자아의 자아와의 관계(les rapports de soi à soi)'를 정립하는 것이다. 자아의 기술들은 자유와 자율성, 욕망과 쾌락, 그리고 심미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주체, 즉 자기창조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주체형성에

<표 1> 사회학적 권력 개념의 성격

권력	본 질		성격
	마르크스	자본	지배권력
부르디외	시장권력		
푸코	관계망	생산적·공정적 힘	창조적
루만	소통	복종전략	비 억압적
하버마스		사회권력	창조적

〈표 2〉 억압의 근원과 의식체계와 욕망의 추구가치



서 자아의 기술들은 '자율적인 자기훈육'으로 전치되며 자기훈육이란 자기창조를 위한 자율적 실천이다.<sup>30)</sup> 쾌락의 활용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배려를 통한 자기 지배를 준거점으로 삼는 자기 절제의 기술이자 쾌락의 윤리이다. 쾌락은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주체화 과정에서 자기 테크놀로지로 작용한다. 쾌락의 활용은 존재의 부정에 기초한 법의 금지와 억압의 메커니즘이 아닌, 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실존의 미학으로서 주체화에 종속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의 테크놀로지이다.

### Ⅲ.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과 특성

#### 1. 몸·복식에서 억압의 용어 정의

몸·복식에서 억압은 자연적 형상과 본질적 욕망에 대한 변형을 구체화시킨다. 몸·복식에서 억압을 통한 변형이란 억압의 결과로서 '이상'을 향한 창조적 실천이며 시각적으로는 미적 효과를 동반한다. 변형이란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metamorphosis, mod-

ification, transformation' 등의 단어가 해당된다.<sup>31)</sup> 코다(Horold Koda)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인체변형(body transform)으로 보았다.<sup>32)</sup> 맥켄드릭(Karmen MacKendrick)은 인체를 제거하거나 고통스럽게 움직임을 제한하여 인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인체변형(body modification)으로 보았다.<sup>33)</sup> 이은영은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을 신체상의 장식방법이라 하였다.<sup>34)</sup> 이승은은 인체 장식을 화장, 바디 페인팅, 헤나 염색 등 피부에 침투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과 문신, 피어싱, 미용성형 등 피부에 침투하는 영구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sup>35)</sup> 억압의 일반적 개념과 인체 변형 및 결과로서의 장식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몸·복식에서 억압은 인체의 자연적 발달이나 활동에 대한 규제, 혹은 인체 그 자체에 일시적, 영구적 변형을 가하는 인체 변형(body modification)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왜곡을 수반하는 것과 이를 표현하는 복식활동이다.

## 2.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관계

후기구조주의는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되어 70~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이론과 공유되며 인간 행위와 그 산물을 설명하려는 사고 유형 및 인식에 대한 이론이다. 후기구조주의는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체,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며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하였다.<sup>36)</sup> 본 연구에서는 후기구조주의 몸 이론에서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몸, 탈 결합되고 해체되어 새롭게 재구성되어진 몸, 상징가치의 담지체로서의 몸을 각각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명명하였다.

### 1) 본능의 욕망

본능(instinct)은 개인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목적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물에게 있어서 고유한 유전적 행동구조를 말한다.<sup>37)</sup> 프로이트는 본능을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 신체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심리적 대표자”라고 하였다. “본능은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늘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써 작용한다.”<sup>38)</sup> 욕망(wish)은 프로이트가 가장한 최초의 경험 형태인 충족체험에 의거한다. 충족체험은 욕구가 만들어 낸 긴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진정되는 체험이다. 충족을 주는 대상의 이미지는 주체의 욕망의 구성에서 선택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실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再)투여되며, 나중에 충족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는데 항상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sup>39)</sup> 충족체험에 뒤이어 욕구가 다시 생길 때, 최초의 충족상황을 재현하려는 심리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욕구의 통제와 발산에 대한 선택과 제어를 통해 몸을 자신의 삶에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보존하려 한다.<sup>40)</sup>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몸에 관한 현상학적 성찰에서 주체는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의 출발점으로 ‘지각의 원천성’과 ‘체험된 몸’을 강조

하였고 지각을 육화된 몸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곧 표현이며 몸은 이러한 지각과 표현을 수행하는 장소이다.<sup>41)</sup>

몸·복식에서 본능의 욕망은 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플뤼겔(Flügel)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중 성적 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간으로 인간의 의복착용동기를 상반된 양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옷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리며 정숙한 체하지만 오히려 감추어진 몸의 부위로 성적매력과 관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플뤼겔은 여체의 머리, 목, 유방, 허리, 엉덩이, 팔, 다리는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위이며 이러한 신체부위를 남성에게 보이기 위하여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 옷으로 강조하거나 감춤으로써 패션이 변한다고 하였다. 반면, 팍토(Francette Pacteau)는 수동적 노출증과 능동적 관음증이 남녀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sup>42)</sup> 보이기 위해 과시하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은 몸·복식을 통한 억압을 자연발생적 현상 즉 본능의 욕망으로 치환시키며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 중심화를 완성시킨다.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관계에서 억압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나 이로부터의 권력 관계를 초월한다.

### 2) 권력의 욕망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권력의 욕망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바탕위에 잠재하여 있다가 외부의 대상이나 자극에 의한 충족체험을 원할 때 발생하며 충족의 실제 대상이 없어도 작용한다. 라캉은 “부러움이란 그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자신에게는 충족의 대상이 아닌 것을 타인이 소유할 때 느낀다.”라고 하였다.<sup>43)</sup> 타인이 소유한 것은 절대로 관찰자가 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욕망의 본질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핍(lack)이다.<sup>44)</sup> 반면, 들뢰즈는 욕망을 결여로 인해 파생되는 것이 아닌 생성의 에너지로 보았고 새로운 욕망을 한없이 조장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으로 보았다.<sup>45)</sup> 욕망은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자의 끝없는 관찰자로서 살게

하지만 깨끗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억압되어서 무의식으로 남아 의식에 영향을 준다.<sup>46)</sup>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지배계급의 전략이며, 욕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권력은 사회에 미시적으로 편재하며 지식과 연계하여 신체를 통제하고 인간의 행위와 신체, 마음과 의도까지 만들어낸다.<sup>47)</sup> 몸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 푸코가 말하는 비 위협적인 '유순한 몸'은 사회문화적 생활규범에 의해 인간의 몸이 어떻게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sup>48)</sup> 푸코는 '유순한 몸'을 통하여 본능의 욕망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몸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들레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에게 몸은 기계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세계, 사회, 인간, 예술, 몸 등 모든 것을 기계라고 하였다. 기계의 범주에 속하는 몸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절단과 접합이 끊임없는 흐르는 '기관 없는 몸(body-without organs)'과 중첩된다.<sup>49)</sup> 기관 없는 몸은 사회적인 결합, 교육, 기호화, 주체화된 상황에서 분리되어 탈 결합되고 해체되며, 탈 영토화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 몸이다.<sup>50)</sup> 권력은 객관적 행위를 관습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형태화를 시작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권력을 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권력을 문화적으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sup>51)</sup> 복식은 가시적 특성으로 인해 관습의 형태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데 남성은 여성들에게 '여성성'이란 것을 부과시킴으로써 남성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했다.<sup>52)</sup> 부르디외는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성적인 구별 짓기에 부합하는 외부적 표시들을 강조하거나 각 성에 알맞은 활동을 고무하는 활동을 상징폭력의 가시화, 신체적으로는 강요된 일종의 '감금상태'라고 하였다.<sup>53)</sup> 베블런(Thorstein B. Veblen)은 패션을 계급 차별화의 도구로 인식하였고, 짐멜(Simmel)은 패션을 계급상징의 동조성과 개인 차별화의 도구로 진술하였다. 짐멜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구취시킨다고 하였다.<sup>54)</sup> 패션의 역학은 양면적인 인간태도

로서 개인화와 동조화, 차이와 연합,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과 의존(동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모두 포함한다. 패션에 대한 인간의 모순적 충동은 변화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짐멜은 패션화된 신체를 자아 확대의 의미로 이해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 권력의 일부로 인식한다. 짐멜에게 몸·복식이란 권력의 욕망에 대한 하나의 연습인 것이다.

### 3) 창조적 욕망

몸·복식에 대하여 관찰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지각하고, 지금 보이는 대상과 과거 속에서 지각된 적이 있는 몸·복식을 함께 지각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경험에 의한 지각은 역사 속에서 대상을 경험하며 상징적 의미를 찾았다고 하였다. '그때의 과거'를 지향하고 자신의 몸·복식을 보이는 대상의 이미지와 비교 할 때 "그것의 내용, 즉 욕동의 심리적 표현은 무의식적이고 생래적(生來)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해석을 요구한다.<sup>55)</sup> 프로이트는 자아 형성의 과정을 '동일시 기제(同一視 機制)'로 보았다.<sup>56)</sup> 동일시의 현상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복수성(複數性)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몸·복식에서 변화와 창조를 유지시키는 심리학 적 기제이자 억압의 메커니즘이다.

부르디외(Bourdieu)는 몸을 상징가치의 담지체, 육체자본(physical capital)의 한 형태로 보았고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몸의 상품화란 몸이 노동력의 매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몸이 더 포괄적 형태의 자본이 되는 방법들을 가리킨다. 육체자본이란 육체가 권력과 지위,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육체자본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제시한 몸은 다양한 사회적 힘과 연관되어 발달하는 미완의 실체이다.<sup>57)</sup>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몸을 현대소비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의 대상으로 보았다. 소비사회에서 몸은 차별적,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는 기호이며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고 심리적 의미에서 몰신숭배 되고 있다. 몸은

〈표 3〉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본 몸과 인간의 욕망



소비의 대상으로서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목표에 따라서 투자에 의해 재창조된 몸은 향락과 쾌락주의적 효율성을 따르게 된다. 소비사회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정비되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형식 중의 하나로서 조작되며,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사물에서 교환 가능한 기호로서의 사물로 이해되고 있다.<sup>58)</sup>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몸·복식을 통한 억압은 창조의 욕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창조의 욕망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몸을 대상으로 한다. 창조의 욕망이 대상으로 하는 몸은 몸주체의 인식적 변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욕망이 다루는 몸과 차별된다.

창조의 욕망에서 복식은 인간의 몸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기호이다. 복식은 모든 사회와 문화, 인간의 사고, 가치, 이념, 태도, 정서를 담아내는 시물레이션이며 전달내용이다. 전통적으로 복식은 몸을 담고 있는 제 2의 피부이며, 몸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몸의 형태와 기능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sup>59)</sup> 그러나 현대 패션에서는 옷이 몸을 빌려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옷을 창조하고 있다.

#### IV. 몸·복식에서 억압의 패러다임 개발

##### 1.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은 억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대상을 기준으로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로 자리한 몸의 관리를 사회문화적 이상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며 학습을 통한 심리적 억압이나 사회규범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몸을 통한 억압은 결과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복식의 조형적 변화방식을 중심으로 노출과 은폐, 축소와 확대, 해체와 재구성으로 구분하였다.

##### 1) 몸을 통한 억압의 유형

###### (1) 일시적 억압

몸을 통한 억압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유형의 인체 변형을 포함한다. 형의 변형에는 수염이나 헤어스타일, 손톱 기르기 등이 있다. 색의 변형으로 머리 염색이나 화장, 바디페인팅, 헤나 염색, 매니큐어, 페디큐어(pedicure) 등이 있다. 재질감의 변형으로 피부 마사지와 머릿결에 대한 파마 등이 있다. 냄새의 변형으로 향수나 방취제 등의 사용을 들 수 있으며, 맛의 변형으로 고감성,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되고 있는 다양한 식용 첨가제

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조형의 요소로서 형, 색, 재질감의 변형이 주를 이룬다. 몸의 일시적인 변형은 사회 발달사에 있어서 원시사회의 장식 본능이나 토테미즘, 근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규범,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적 요소로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미적 이상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 소속감 등의 표현을 위해 행해지는 스킨헤드, 피어싱, 다이어트 등도 새로운 유형의 일시적 억압으로 파악된다.

## (2) 영구적 변형

몸을 통한 억압에서 영구적이라 함은 인체 변형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과 신체의 일부라도 구조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방법의 시술과 수술이 두루 적용되고 있다. 형의 변형으로 늘리거나 뚫으며, 자르고, 절단 시키는 물리적 방법이 있다. 목 늘리기, 컷볼 늘리기, 입술 늘리기, 거세, 할례, 치아 갈기와 발치 등과 신장의 확장을 위해 뼈를 부러뜨리고 자라게 하는 것과 인체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미용성형 등이 있다. 색과 재질감의 변형으로 눈썹, 얼굴, 팔, 등판 등 신체의 전 범위에 두루 시술되는 상흔(Scar)과 문신(tattooing) 등이 있다.

## 2) 복식을 통한 억압의 유형

### (1) 노출과 은폐

복식에 있어서 노출과 은폐의 방법으로는 신체부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 투명도, 두께, 드레이프성 등의 소재특성을 이용하여 드러내는 방법, 구조적 특성과 착용방법으로써 옷을 몸에 밀착시켜 드러내는 방법 등이 있다. 노출과 은폐는 자연의 기후 특성에 따른 복식 형태의 지역적 특수성,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에 따른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관념, 자아의 '드러냄'과 '숨김'의 양면적 갈등 욕구가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른 몸·복식의 변화 속에 미적 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 (2) 축소와 확대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축소와 확대는 몸의 물리적 조형성과 몸의 연장으로 복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몸의 물리적 조형성에 바탕을 둔 축소와 확대는 비례의 측면에서 억압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를 확대, 혹은 축소되어 보이게 하여 억압을 통해 강조된 신체부위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전체 실루엣의 확대 또한 복식에 대한 인체의 비례를 축소되어 보이게 하거나 주변 물체나 사람을 축소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수직적 확대를 통한 강조의 기능은 키가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힘과 위엄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면적의 확대는 신체의 크기를 커 보이게 함으로써 힘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복식을 착용하여 평민과 차별화를 하였다. 복식에서 축소와 확대를 통한 강조는 복식의 기원 내지는 착용동기에서 고전적인 신분 상징설을 뒷받침한다.<sup>60)</sup>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의미로 치환시키는 과정에서 인체의 비례나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미적 가치의 해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 (3) 해체와 재구성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해체와 재구성은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적 인식의 중심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 중심화, 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적 시선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말한다. 복식을 통한 해체와 재구성의 표현방법으로는 성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는 전통적인 성 관념의 해체와 재구성, 복식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복식의 인체재현 특성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신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등이 있다.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해체와 재구성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몸에 대한 이미지나 몸·복식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체를 통해 억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디자이너의 미적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몸을 억압한다. 현대 패션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해체와 재구성은 억압에 대한 창조의 욕망으로 파악될 수 있다.

## 2. 몸·복식에서 억압의 미적 가치

### 1) 나르시시즘

로스틴(Arnold Rothstein)은 나르시시즘을 ‘완전함의 감각’으로 정의하였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완전함은 실재에 대한 방어적 왜곡이나 자기대상과의 공생 단계에서 연유하는 환상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이상화에는 언제나 과대평가와 왜곡이 존재한다. 쾨버그(Otto Kernberg)는 나르시시즘을 움직이는 감정적 힘을 자궁심으로 파악하였고, 나르시시즘의 특징으로 원래 자아에 귀속되어 있던 에너지를 투여하여 목표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상화를 지적하였다. 인간은 나르시시즘의 대상을 선택할 때 현재의 자신, 과거의 자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과거 자신의 일부였던 모습을 상정한다. 코후트(Heinz Kohut)는 나르시시즘의 방향성으로 자아의 건강한 자기주장이거나 야심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거울전이(mirror-transference)와 가치를 유지해주는 이상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이상화전이(idealizing-transference)를 지적하였다.<sup>61)</sup> 래쉬(Christopher Lasch)는 현대의 여러 경향들이 개인의 자기관념을 위협하는 도덕관념이나 집단에 대한 귀속을 기피하며 축소 지향적 피난처를 찾는 경향의 의미로서 퇴행적 나르시시즘을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sup>62)</sup>

프로이트는 주체의 나르시시즘 구조물로서 내면세계의 환상대상과 함께 자아이상(ego-ideal)을 설정하고 있다. ‘자아이상’이란 자아의 이상을 투영한 하나의 외부대상을 말한다. 자아이상은 자신에 대한 완벽함의 개념으로 주체의 이상과 가치관을 드러내준다. 완벽함이란 주체의 윤리적, 비판적 사고로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초자아(super-ego)와도 관련된다. 자아이상과의 동일시는 1차적 나르시시즘처럼 주체와 대상 간의 비(非)분화 상태로 경험되며, 주체는 자신에 대한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주체의 사회화 이후에 형성되는 자아이상 역시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나르시시즘의 대체물이다. 자아이상의 형성은 성인 주체에 있어서 자아의 욕구를 높이고 억압을 조건지우는 초자아와 관계하면서 나르시시즘을 계속적으로 보장해주는 요인이 되는 양가성을 갖는다. 프로

이트는 자아이상을 통해 인간이 사회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로이트는 자아의 발전이 일차적 나르시시즘을 벗어난 후 다시 이를 회복하고자 애씀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sup>63)</sup> 나르시시즘은 최상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궁심의 회복을 통하여 삶에 지속성을 부여하고 창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 (1) 자기에

거울전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에(自己愛)는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자기에란 자아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지속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에 나르시시즘의 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통일된 신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자기에 는 자아의 현실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며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의 특성을 갖는다.

#### (2) 대상애

이상전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상애(對象愛)는 리비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 외부의 대상을 향해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대상애는 리비도의 대상으로 작용하는 타자의 육체나 정신적 특징을 자아의 것으로 믿는 동일시를 통해 나타나지만 성적·물적 특성의 소유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페티시즘과는 구별된다. 대상애는 삶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의 이상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동일시 대상의 체현과 유지를 위해 삶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미적 가치를 지닌다.

#### (3) 퇴행적 나르시시즘

지속적인 억압에 대한 거부로서 자아의 원천성에 대한 회귀를 통해 자궁심을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퇴행적이란 현대사회의 여러 경향들이 개인의 자기이상을 위협하는 도덕관념이나 집단에 대한 귀속을 기피하며 축소 지향적 피난처를 찾는 경향을 의미한다.

## 2) 페티시즘

페티시의 사전적 정의로는 첫째, 주물(呪物), 물신(物神)의 의미로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이교도들의 숭배대상이며 둘째, 비정상적인 숭배나 지나친 관심의 대상, 또는 사로잡힘, 집착(obsession)의 의미가 있다.<sup>64)</sup> 페티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가 확대된 숭배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태도이다. 인류학적 연구에서 페티시는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안에 있는 정신을 지칭하며 종교의 최초 발전단계를 설명한다. 원시종교에서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 존경, 숭배를 페티시즘이라 하였다. 특히, 옷은 닿을 수 없는 몸을 대신하는 것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물질은 자연의 힘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의 병을 치료, 치유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었다. 페티시는 기원적 의미에서 마술적이고 영적인 힘과 관계되며, 비이성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물, 사물에 대한 숭배의 태도를 모두 지칭한다.<sup>65)</sup>

몰(Abraham Moles)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주변 사물에 대해 갖는 태도로서 '무엇인가를 사는 것'으로 만족시켜줘야 하는 사물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의 의미로 페티시즘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숭배가 소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며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욕망의 대상이 상품으로 전이된 것을 반영한다.<sup>66)</sup> 쿤즐(David Kunzle)은 페티시 대상의 소유에 대한 욕망의 모순(paradox of desire), 즉 근본적으로 얻을 수 없는 환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페티시의 본질을 지적하였다. 페티시 대상물은 신의 힘이나, 사랑, 권력 등의 환상의 일부분과 제유적인 의미를 가지며, 환상에 대한 욕구는 대상물에 대한 집착으로 현실화되어 페티시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sup>67)</sup>

### (1) 성적 페티시즘

1880년대에는 페티시즘에 대해 보다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로서 '성적 페티시즘(sexual fetishism)'에 대한 개념이 나타났다. 프로이트가 밝힌 페티시즘의 기원에서는 억압과 부인, 타협의 구조가 존재한다. 소년이 여성에게 페니스가 없음을 지각하면서, 감정

의 '억압'과 표상의 '부인'이 일어난다. 여성이 가지는 결핍에 대해 부인(否認)과 승인(承認)이 동시에 행해지는 모순은 무의식의 '타협'을 통해서 결핍을 대리물로 대체한 여성에게 성적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sup>68)</sup> 페티시즘은 유물숭배와 여성의 유물화(唯物化)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는다. 페티시 대상물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욕구의 대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의미구조를 가지며, 머리카락의 색, 의류 때로는 신체의 결함 등이 페티시즘의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9)</sup>

### (2) 물적 페티시즘

마르크스는 상품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짐을 설명하였고, 재화가 가지게 되는 힘을 상품 페티시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마르크스의 상품 페티시즘은 상품이 가지는 사회적 힘이나 가치가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물 자체에 힘이나 가치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70)</sup>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두 요인을 설명한다. 사용가치는 사물이 가지는 유용한 성질로서 이것은 모든 물적 존재가 자연적으로 갖는 가치이다. 이런 물적 존재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 교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상품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치가 교환가치이다. 보드리야르는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는 받아들이면서도 사물을 '물리적 물체'로 보지 않고 '기호'로 파악하였고 체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호로서의 사물은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기호로서의 상징가치와 물신적 가치를 지닌다.<sup>71)</sup> 보드리야르의 상품 페티시즘은 '상품 자체가 힘을 가진 것으로 믿음'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상품이 기호로 갖는 기의에 매혹되며, 실체의 추구가 아닌 기호의 체계에 주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 페티시즘에서 인간의 욕구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된다. 하우크(W. F. Haug)는 1971년 『상품미학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자본의 기술을 미적 혁신(ästhetische innovation)으로 설명하였다.<sup>72)</sup> 상품미학에서는 사물이 가지는 물신성(物神性)을 보다 발전시켜 상품을 미화하는 가상으로서 미적 가상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미적 가상은 상품에서 분리되어 상품을 둘러싸는 총체적인 환경으로서 가상공간 구성의 차원까지 확장되며, 감각의 가상적 만족을 통해서 동시에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내는 강제적 집착상태를 유도한다.<sup>73)</sup> 미적 가상은 미적 추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상품의 표면적 이미지는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게 된다. 즉, 상품 자체가 힘을 가진 것으로 믿게 되는 물신의 단계에서 이제는 상품의 가상적 이미지가 상품의 가치에 더 큰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학적 해석에서 상품이나 상품의 이미지는 기호로서 사회적 의미와 제유적인 관계를 가지며, 물적 페티시즘의 기본구조를 이룬다.

### 3) 에스테티시즘

서양미술사에서 일반적으로 에스테티시즘은 '예술만의 예술(l'art pour l'art)'운동과 관련하여 논의되며 미적 근대성의 개념으로서 예술이 사회 전반적 가치와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에스테티시즘은 19세기 말 자연주의 등에 대한 반발로 인공적인 것을 중시하며 예술의 독자성을 추구한 경향으로 모든 것을 미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 및 세계관으로 예술지상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sup>74)</sup> 본 논문에서는 에스테티시즘을 라파엘전파가 이끌어 갔던 대중문화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발굴하여 제시한 점과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저항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자유를 주창하고 순수한 미적 가능성을 도출해냈던 사조로 파악하였다.<sup>75)</sup> 몸·복식에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적 가치로서 에스테티시즘은 자아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창조적 욕망이며 통시적 관점에서 시대적 이상미와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로서 절대적 이상미로 분류하였다.

### (1) 시대적 이상미

이상미(理想美, ideal beauty)는 이상(理想, idea)과 미(美, beauty)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상미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고 또는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움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것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이상미란 한 시대의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미적 가치로서 시대정신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이다. 헤겔(Hegel)은 시대정신을 개개의 인간정신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정신세계가 역사 속에서 자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각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sup>76)</sup>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멋과 생활 전체의 양식 속에 관념화되어 각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복식의 형식이 문화적 공유성(共有性)을 지니게 한다.<sup>77)</sup>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시대정신을 공유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각 시대가 추구하는 조형적 특성은 시대마다 특수성을 가진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형식의 변화를 초래하며 형식의 변화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미가 표출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형식에 나타난 시대적 특수성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미적 가치로 보편화될 때의 미적 가치가 시대적 이상미이다. 시대적 이상미는 통시적인 객관성의 미(美)가 아니라 시대마다 추구했던 미(美)의 개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보편성의 미(美)라고 볼 수 있다. 시대적 이상미의 보편성은 그 시대 안에서 보편적이고 공통되는 미(美)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美)이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기인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에 의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미적 가치로서의 이상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시대적 이상미의 법칙을 주도해왔던 세력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계급 또는 정치를 지도하는 계급이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해서 이상미는 형성되고 강요되어 왔다.<sup>78)</sup> 시대적 이상미는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미(美)가 이상미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체를 통해 기록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권력의 욕망을 반영한다.

(2) 절대적 이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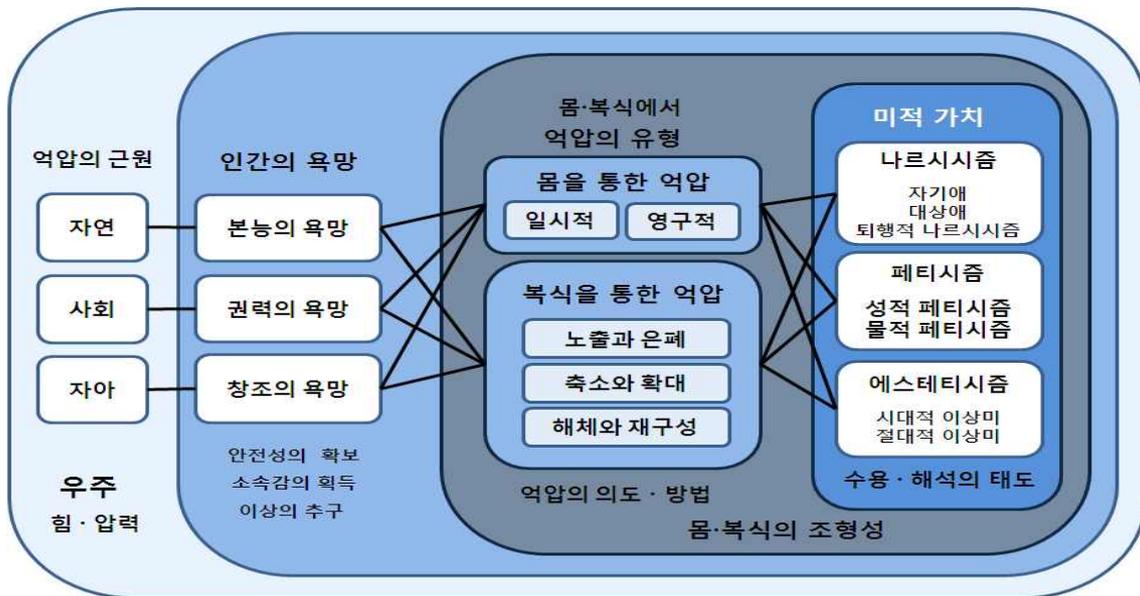
절대적 이상미란 상대적 이상을 표현하는 시대적 이상미와 같이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표현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편적 현실 상황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으로써 디자이너의 창조의 욕망을 표현한다. 프로이트가 생의 본능으로 제시한 리비도(libido)의 에너지를 비현실적인 공상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 발산시키는 승화(sublimation)의 단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억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sup>79)</sup>

이상이라는 단어에는 실존하지 않음, 현실과의 대치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완벽한 미(美)에 도달했다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며 완벽한 미(美)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이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구현은 또 다른 절대적 이상미를 추구하게 만든다. 절대적 이상미는 창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를 강화시키지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3.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개발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션의 변화가 대중의 거센 반발 없이 수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활동과 의지 때문인가? 소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그 속에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하는 소비문화의 재생산 때문인가? 현대 패션을 디자이너, 착용자, 관찰자의 공조하에 이루어지는 내적 의지의 외적 표현<sup>80)</sup>이라고 한다면 이제 몸·복식에 표현된 억압의 미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억압은 본능의 욕망을 제압하기 위해 탄생되었고 권력의 욕망은 시대에 따라 억압의 유형을 변화시켜왔으며 창조의 욕망은 억압을 주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자기 테크놀로지의 메커니즘이 되어왔다.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추구하게 한다. 억압과 욕망의 결과는 몸을 통한 억압으로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노출과 은폐, 축소와 확대, 해체와 재구성으로 나타나며 나르시시즘, 페티시즘, 에스테티시즘의 미적 가치를 지닌다.

<표 4>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은 해석하는 두 방향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의 의미는 상이할 수 있다. 첫째, 좌에서 우로 해석하자면 억압은 욕망을 자극한다. 억압의 결과로 발생한 욕망은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으로 표현된다. 억압과 욕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을 토대로 미적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둘째, 우에서 좌로 해석하자면 미적 가치의 추구가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으로 표현된다. 몸·복식의 조형성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 억압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다.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의 해석은 동일한 미적 대상에 대한 미적 가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이 억압이나 욕망에 대한 순응적 태도의 결과인가? 저항적 태도의 결과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연구는 억압을 의식적·무의식적 지배양식으로 파악하고 몸·복식의 조형성을 억압에 대한 순응적 태도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미가 시대적 이상미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체를 통해 기록으로 남아 미적 대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사에서 억압이나 욕망에 대한 저항적 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에 대한 사례로는 자연의 억압이나 본능의 욕망에 대한 나르시시즘 경우가 있다. 나르시시즘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억압이나 욕망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항적 태도를 취한다. 본능의 욕망으로서 나르시시즘은 몸의 노출을 추구하게 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취향이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복식으로 몸을 가린다. 때때로 복식을 통한 노출과 은폐를 억압이나 욕망에 대한 저항적 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복식을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의 고유한 문화메타포로 볼 때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18세기 이후 이성적 남성들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며 '위대한 남성의 포기(Great masculine renunciation)'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억압이나 욕망에 대한 거부의 저항적 태도로 판단하기보다는 18세기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남성의 권력의 욕망과 남성의 자

긍심에서 비롯된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 V. 결론

억압은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 전반에서 욕구에 대하여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한다. 억압은 순응하는 인간에게는 그 본질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때때로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작용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에 변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억압은 생존조건으로 본능의 욕망을 제압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억압은 권력의 욕망으로 개인이나 집단에서 특권의 불균형을 강화한다. 미학적 관점에서 억압은 창조의 욕망으로 욕구와 행위를 배분하고 조절하는 주체화의 양식, 자기 테크놀로지이다.

몸·복식에서 억압은 육체적·정신적 왜곡을 수반하는 인체변형과 이를 표현하는 복식활동이다.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으로는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이 있다. 몸을 통한 억압에는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일시적 것과 피부 속으로 침투하여 인체가 구조적으로 변형되는 영구적인 것이 있고,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노출과 은폐, 확대와 축소, 해체와 재구성 등이 있다.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자극하고 몸·복식의 조형적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로서 표현된 몸·복식의 조형성은 억압의 미적 가치를 해석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몸·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통합적 이미지는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이 미적 이상을 통해 표현된 결과이다.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미적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은 미적 이상을 추구하는 환상의 구조를 공유한다. 나르시시즘은 억압에 대한 본능의 욕망으로서 자긍심을 통해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거부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향상성에 기여한다. 페티시즘은 억압에 대한 권력의 욕망으로서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일의 다양화·고급화에 기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

다. 에스테티시즘은 억압에 대한 창조적 욕망으로서 몸·복식의 변화에 미적 취향으로서의 차별성을 제공하고 창조적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억압과 욕망에 대한 태도는 몸·복식의 변화 방식을 결정하지만 몸·복식에서 억압의 미적 가치는 행위자의 내적 의도나 결과로서 표현된 현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태도에 의존한다. 몸·복식의 미적 가치에는 미적 대상을 통해 파악되는 조형미, 내적·정신적 가치와 미적 대상을 초월한 내적·정신적 가치의 파급효과가 있다.

인간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억압의 보편성을 몸·복식의 변화와 창조를 통해 극복해 왔다. 억압은 저지와 금지의 지배양식이 아닌 조화를 위한 창조적 지배양식이다.

### 참고문헌

- 1) Weil, Simone (1980), *억압과 자유*, 박선숙 역, 서울: 일월서각, p. 99.
- 2) 강옥선 (1999), 블레이크와 프로이트 - 성본능과 억압의 원리를 중심으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1), p. 88.
- 3) 민중서림 편 (1995), *엡센스 국어사전* (제 3 판), 서울: 민중서림, p. 1712.
- 4) 자료검색일 2010. 8. 20,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scBtn=true&query=C%96%B5%EC%95%95>
- 5) Hornby, AS (1981), *혼비영영한사전*, 김중만 역, 서울: 범문사, p. 1312.
- 6) 자료검색일 2010. 8. 20,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203>
- 7) Weil, Simone, *op. cit.*, p. 99.
- 8) 윤진각 (2009), 게엘렌(A. Gehlen)에 있어서 인간과 문화,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9) 박만준 (2000), 문화의 기원 - 게엘렌의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11, p. 99.
- 10) 박만준 (1998), 게엘렌의 행위이론, *철학논총*, 15, p. 144.
- 11) 윤진각, *op. cit.*, pp. 10-80.
- 12) Weil, Simone, *op. cit.*, p. 90.
- 13) 두산동아 편 (2003),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 308.
- 14) 양운덕 (2003), *미셸 푸코*, 서울: 살림, p. 13.
- 15) 민영택 (1968), *정치학 사전*, 서울: 문영각, p. 351.
- 16) 이동수 (2001),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5, p. 155.
- 17) 양운덕, *op. cit.*, p. 16.
- 18) 하상복 (2006), *부르디외 & 기든스*, 파주: 김영사, p. 62.
- 19) 양운덕, *op. cit.*, pp. 18-23.
- 20) 이민선 (2006), 권력 구조가 복식의 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6(5), p. 91.
- 21) 서영조, 김영일 (2009), 니콜라스 루만의 권력이론: 소통수단으로서의 권력, *21세기 정치학회보*, 9(2), p. 22.
- 22) 이동수 (2001),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5, p. 155.
- 23) Strachey, James (1998),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황보석 역, 서울: 열린 책들, pp. 217-223.
- 24) *Ibid.*, p. 110.
- 25)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2002),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pp. 155- 158.
- 26) *Ibid.*, pp. 444-446.
- 27) Foucault, Michel (2004),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이규현 역, 파주: 나남출판사, p. 99.
- 28) 허경 (2009), '욕망의 억압'에서 '쾌락의 활용'으로 -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3, pp. 437-449.
- 29) Foucault, Michel (2004), *성의 역사 3: 자기에의 배려*, 이혜숙, 이영목 역, 파주: 나남출판사, p. 25.
- 30) 이영자 (2006), 몸 권력과 젠더 - 푸코적 분석들에서 본 '낯선한 몸'관리, *한국여성학*, 22(4), pp. 211-213.
- 31) 동아출판사 (1982),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p. 813.
- 32) Koda, Harold (2001),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7.
- 33) 김지연 (2007), 인체를 변형시키는 인체장식에 관한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vol. 4, p. 31.
- 34) 이은영 (2004),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p. 10-12.
- 35) 이승은 (2000),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8.
- 36) 김순자 (2007), 후기 구조주의적 신체론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표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7), p. 1053.
- 37) Laplanche, Jean, Pontalis, J. B (2005), *정신분석사전*, 임진수 역, 서울: 열린 책들, p. 167.
- 38)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전집 13,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서울: 열린 책들, pp. 94-104.
- 39) Laplanche, Jean, Pontalis, J. B, *op. cit.*, p. 467.
- 40) *Ibid.*, pp. 283-284.
- 41) 신혜영 (2004), M.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회화론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42)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p. 82-84.
- 43) Lancan, Jacques (1994), *욕망이론*, 민승기 역, 서울: 문예출판사, p. 35.
- 44) 권택영 (1998),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서울: 문예출판사, p. 31.
- 45) Bogue, Ronald (1995),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역, 서울: 새길신서, p. 145.
- 46) Lancan, Jacques, *op. cit.*, p. 13.

- 47) 김순자, *op. cit.*, p. 1053.
- 48) 최옥선 (2005), 여성의 몸 담론과 성형담론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의 기사와 성형의류광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6-28.
- 49) 괴중호 (2004), 후기 구조주의의 '몸'과 재현의 위기, *독일문학*, 92, p. 98.
- 50) 최광진 (2004), *현대미술의 전략*, 파주: (주) 아트 북스, p. 220.
- 51) 이민선, *op. cit.*, p. 94.
- 52) Reynaud, Emmanuel (2001),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김희정 역, 서울: 책갈피, p. 75.
- 53) 박혜원 (2003), 성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dieu)의 '젠더관계': <남성지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54) 김민자, *op. cit.*, p. 87.
- 55) Laplanche, Jean, Pontalis, J. B, *op. cit.*, p. 75.
- 56) Freud, Sigmund (200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민희식 역, 서울: 정민미디어, p. 285.
- 57) Shilling, C. (2006),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파주: 나남출판, pp. 186-215.
- 58) Baudrillard, J. (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pp. 190-194.
- 59) 김민자, *op. cit.*, p. 93.
- 60) 이은영, *op. cit.*, pp. 3-13.
- 61) 우상민 (2006), Shakespeare's Sonnets와 나르시시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0-36.
- 62) *Ibid.*, p. 19.
- 63) 서진영 (1998), 김춘수 시에 나타난 나르시시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44.
- 64) Hornby, AS, *op. cit.*, pp. 569-570.
- 65) 서기숙 (1999), 패션에서 페티시즘 (Fetishism)의 정신분석학적·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성적 이미지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66) Moles, Abraham (1994),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p. 20.
- 67) 서기숙, *op. cit.*, pp. 7-8.
- 68)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성애론*, 정성호 역, 서울: 문학세계사, p. 233.
- 69) 이의정, 양희숙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p. 74.
- 70) Jhally, Sut (1996), *광고문화: 소비의 정치경제학*, 윤선희 역, 서울: 한나래, p. 56.
- 71) Baudrillard, Jean (1992),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이규현 역, 서울: 문학과 지성, p. 143.
- 72) *Ibid.*, pp. 69-95.
- 73) 김문환 (1998),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몰신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61.
- 74) 이재경, 박은경 (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p. 70.
- 75) 이주은 (1994), 대중문화적 요소를 절충한 라파엘전파의 유티주의, *미술사학*, 21(1), pp. 87-107.
- 76) 신주영 (2008),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복식*, 58(3), pp. 132-133.
- 77) 김민자, *op. cit.*, p. 99.
- 78) Fuchs, Eduard (2001), *풍속의 역사 III: 색의 시대*, 이기웅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pp. 9-11.
- 79) Riviere, Joan (1990), *프로이트 - 정신분석입문*, 김성태 역, 서울: 삼성출판사, pp. 20-21.
- 80) 임은혁 (2005),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2) - 몸의 사실성 변질을 중심으로, *복식*, 56(9), p. 67.